

# “국민이 해냈다” 여의도 모인 100만 인파 ‘감동의 물결’

가결 발표 직후 집회 참여자 너도나도 ‘탄성’ 전국서 모인 인파 ‘감격스럽다’·“벽차다” 눈물 “이제 시작...수사·처벌 모두 지켜볼 것” 강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실시된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수십만명의 시민들로 가득하다. /연합뉴스

“위대한 국민의 승리는 앞으로 이 어질 것입니다.”  
지난 14일 오후 1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일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세 시간가량 남았음에도 일찍부터 전국에서 모여든 100만명의 인파로 발 디딜 곳 없이 북볏다.  
‘윤석열 탄핵 고3 연합’, ‘공연계의 빛과 소금 연합’, ‘호랑이 등 굶어주기 협회’ 등 독창성 있는 깃발로 무장한 이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아이돌 팬클럽의 응원봉을 들고 삼삼오오 집회에 참여한 이들도 자주 보였다.  
많은 인파가 밀집된 만큼 부딪치고 밀쳐지는 일이 잦았지만 “괜찮습니다”, “조심하세요”라며 서로를 걱정하는 성숙한 집회문화도 돋보였다.  
영하까지 떨어진 추운 날씨에 손과

귀볼이 금세 공공 얼어 붙어졌지만 시민들은 ‘윤석열 탄핵하라’는 외침과 팻말을 든 손을 멈추지 않았다.  
오후 5시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찬성 201표로 가결됐음을 밝히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선 세상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촛불집회에 함께한 참여자들은 이름도 모를 옆 사람의 손을 꼭 잡아 흔들며 “국민이 해냈다”고 환호했다.  
광주에서 친구들과 함께 왔다는 김민지(23·조선대·여)씨는 “비상계엄 이후 일상에 대한 위협을 느껴 여행을 취소하고 집회에 참석했다”며 “뒤라고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저 감격스럽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두 딸과 함께 집회에 참여한 김민기(6

2)씨도 “벽찬 마음 뿐”이라며 “자녀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집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발표 후 촛불집회

현장은 대축제의 장으로 바뀌었다.  
10~20대들이 주로 아는 대중가요부터 어르신 참석자들을 위한 트로트 등 무대에서 연이어 나오는 ‘승전가’에 맞춰

참석자들은 응원봉과 피켓을 흔들며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탄핵소추안 결과 발표 전 엄숙한 표정으로 시종일관 국회 중계 화면만 바

라봤던 시민들의 표정은 비로소 환해졌다.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뒤 일부 참여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남아있는 이들을 향해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건네고 핫팩과 먹거리 등을 나눠주기도 했다.  
따뜻한 마음을 받은 참여자들은 떠나는데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시라”고 화답했다.  
탄핵소추안 결과 발표 후 1시간이 지나도록 집회 현장을 지키고 있던 이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투쟁을 이어갈 것을 결의했다.  
12·3비상계엄 후 국회에서 열린 집회에 출근 참여해온 오현석(27)씨는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첫 단추가 이제 끼워졌을 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투쟁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씨는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 과정과 재판 등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모든 순간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여의도=안재영·양시원 기자

##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다”

●민주 박찬대 원내대표, 감동적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빛” “44년전 광주시민의 용기가 우리를 움직인 원동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다”며 광주시민들이 피로 지킨 ‘5·18 민주화운동’이 시공간에 구애 없이 한국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점을 상기시켜 눈길을 끌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아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저는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다”며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의 포고령과 44년 전 ‘5·18’ 당시의 포고령 조항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1980년 광주가 떠올랐다”며 “당시 계엄군은 ‘계엄 포고령 위반’을 빌미로 수천명의 광주 시민들을 연행, 구금하고 심지어 학살도 자행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일 12월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개해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모자랐다면, 계엄군 지휘관들과 군인들

이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랐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19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포고령에 근거해 강제 해산되고 국회의원은 계엄군에 체포돼 어딘지 모를 장소에 구금됐을 것이다”며 “언론사는 계엄군에 의해 통제되고,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는 단 한 줄도 내보내지 못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상 만으로도 아찔한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됐을 때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다”며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켜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또한 그는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빛을 쬐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 美대사 “美, 한국과 민주·헌법절차 지지”

외교부 장관과 표결 이후 상황 논의 “한미동맹 굳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14일 “미국은 항상 대한민국과 이곳의 민주적·헌법적 절차를 지지하며 한국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조금 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국회 표결 이후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한반도 및 지역 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며 “조 장관과 저는 한미 동맹이 철통같으며, 앞으로도 이를 굳건히 유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정부와 긴

밀히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저녁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권한 대행 체제에서도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발전시켜 가고자 하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양측은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사분오열에 궤멸 위기...韓 체제 붕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가결되면서 2년9개월 전 윤 대통령 당선으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넜던 보수 진영이 8년 전으로 되돌아가 다시 ‘죽음의 계곡’에 걸어들어야 할지도

모를 처지가 됐다.  
분당 사태, 선거 연패 등으로 궤멸 상태에 내몰렸다가 2022년 ‘외부인’ 윤 대통령을 내세워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또 다시 벼랑 끝에 몰린 것이다.  
당장 한동훈 대표 지도체제가 붕괴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 7월 총선 참패 책임론도 딛고 화려하게 출범한 한동

훈 지도부지만, 탄핵의 쓰나미를 피해 가지는 못하게 된 셈이다.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 등 당 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한 대표는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의원들과 맞섰지만, 결국 선출직 최고위원 5명(김민진·김재원·인요원·장동혁·진중영)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지도부 ‘자동 해산’ 상황을 맞게 됐다. /연합뉴스

### 파크골프 2코스 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수시/매월 30명
- 교육접수: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파크골프장 순회 실습 3회 이상 → 2차 실기시험 18홀 라운딩
- 접수계좌: 농협 351-1286-9685-63 (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010-9163-7897 / Tel. 062-369-0070

### 파크골프 무료교실 (취미반)

- 남녀노소 누구나 매주 12명 한정 모집
- 왕초보 ~ 골프장 실습(실내 연습장 완비)
- 기본사제·라운딩 실습(실내스크린골프 20개구장)
- 골프채·골프용품구매자 각종 혜택 부여

※ 본 연합회 용품 매장 방문 환영, 실내파크골프장(스크린) 운영

상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IPGF 국제파크골프연합회 / 파크골프용품판매전시장**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새우리병원 입구,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 추선회관 방향)